

코끼리는 왜 그랬을까?

이셀 글·그림, 글로연, 2023



주제	인물이 겪은 일과 태도에 대한 내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권장 차시	5차시
대상 학년	1~2학년
관련 주제어	최선, 인내, 우정, 용기, 미덕, 놀이, 술래잡기, 숨바꼭질, 타이포그래피
교육 과정 연계	국어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2국03-04]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통합 [2즐04-04] 여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창의적체험활동_자율활동_친구사랑교육
작성	창원 전안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위험에 빠진 친구를 위한 코끼리의 최선이 만든 기적

숲속에서 가장 큰 코끼리와 가장 작은 생쥐는 친한 친구입니다. 둘은 술래잡기를 하기로 하고, 코끼리는 생쥐를 찾아 굴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데 굴은 점점 좁아집니다. 굴이 좁아지자 술래잡기가 재미없어 그만두려던 코끼리에게 생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위험에 처한 생쥐를 구하기 위해 코끼리는 온몸을 버둥거리며 좁은 굴속이라는 것도 잊고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합니다. 코끼리가 큰 덩치를 가늘게 쥐어짜 좁디 좁은 터널을 통과하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그 간절한 마음이 온전히 전해진답니다. 큰 덩치의 코끼리가 가늘고 긴 뱀처럼 변하며 웃음을 짓게 만드는 건 덤이고요. 드디어 생쥐를 발견한 코끼리는 방귀를 뽀옹 터트리면서 순식간에 생쥐와 함께 터널 속을 빠져나와요. 하지만 생쥐는 코끼리를 보는 순간 뱀인 줄 알고 놀라 도망치지요. 길쭉한 뱀 모양으로 변한 코끼리는 어떻게 코끼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큰 덩치의 코끼리가 좁은 굴을 통과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코끼리가 뱀이 되는 시간’은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끔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견뎌내는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이 책은 코끼리와 생쥐의 술래잡기라는 가볍고 유쾌한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서 보여지는 묵묵한 최선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코끼리는 왜 그랬을까? 를 생각해 보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점점 가늘어지는 코끼리를 위한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의 하모니

좁아지는 굴속으로 쭉쭉 들어가는 코끼리의 모습을 어른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림책의 세상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매력이 있지요. 좁디좁은 굴을 통과하기 위해 코끼리의 몸이 가늘어지고 비틀어지는 모습을 작가는 시각적으로 너무나 그럴싸하고 재미나게 표현했습니다. 코끼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생쥐의 다급한 외침은 땅속 균열을 이용한 이미지로 표시되어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굴속에서 가늘어지는 코끼리의 몸통에 걸맞게 타이포그래피 역시 점점 납작하게 눌러진 모습으로 변하여 그림과 글, 그리고 글을 표현하는 타이포그래피가 하나로 응축되고 융화되어 이야기 본연의 맛을 즐겁게 담아냈습니다.

■ 학습 목표

-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살펴보며 본받을 점을 찾아 이야기할 수 있다.
- 인물이 겪은 일을 떠올려 그 인물이 되어 그림 일기를 쓸 수 있다.
- 함께 정한 약속과 규칙을 지키며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코끼리는 왜 그랬을까?』는 아이가 그린 것 같은 친근한 그림, 적당한 긴장감과 유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결말을 담고 있다. 술래가 된 코끼리는 생쥐를 찾기 위해 굴 속으로 들어간다. 생쥐에게 위험한 일이 생겼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좁은 굴을 힘겹게 통과해내지만 그의 몸은 뱀처럼 길게 변하고 만다. 코끼리가 뱀이 되는 시간은 최선을 다한 시간, 인내의 시간,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 같다. 아이들과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코끼리가 겪은 일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코끼리가 빛낸 미덕을 찾고 등장인물이 되어 일기 쓰기 활동을 하고자 한다. 본 지도안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으나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변형하여 활용해보길 바란다.

수업 준비물

활동지, 색연필, 색싸인펜 등

■ 학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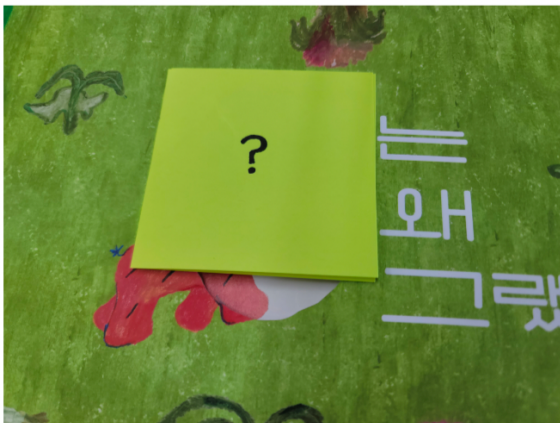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동기 유발	2차시
	표지 살펴보기	
읽는 중	그림책 읽기	
	질문 만들기	
	소감 나누기	
읽은 후	인물이 빛낸 미덕 찾기	1차시
	일기 대신 쓰기	1차시
	함께 놀자!	1차시

읽기 전

1. 동기 유발

■ 누구일까?

- 가려진 부분에 무엇이 있을까요?
- 『 는 왜 그랬을까?』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예: 금붕어 - 주황색이고 지느러미가 보여서. 금붕어는 왜 그랬을까?

토끼 - 뒷다리가 커서 토끼같다. 토끼는 왜 그랬을까?

노루 - 숲속을 그린 것 같아서 노루가 떠올랐다. 노루는 왜 그랬을까?

멧돼지 - 갈색이고 조금 통통한 동물 같아서 멧돼지가 생각났다. 멧돼지는 왜 그랬을까?

Tip. 그림책의 일부를 가리고 숨겨진 글자와 그림을 예상하는 활동으로 그림책에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림책을 직접 보여줄 수도 있고 실물화상기를 이용하여 TV로 크게 보여줄 수도 있다.

2. 표지 살펴보기

■ 제목과 그림 살펴보기

- 그림책 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주황색 아기 코끼리와 새, 생쥐, 꽃이 보여요.

코끼리가 숲을 걸어가고 있어요.

표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 내용 예상하기

- 코끼리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예: 엄마 찾아 자기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정글 속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구멍이 뚫린 걸 보니 어떤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 『코끼리는 왜 그랬을까?』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코끼리가 혼자 모험을 떠나고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 같아요.

호기심 많은 코끼리가 엉뚱한 일을 하는 이야기 같아요.

- ‘코끼리는 왜 그랬을까?’는 누가 하는 말일까요?

예: 엄마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작가가 그림책을 보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 속표지 그림 살펴보기

- 코끼리와 생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 서로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코끼리와 생쥐가 눈싸움을 하고 있어요.

코끼리가 돌에 걸려 넘어져 뒤집어졌는데 친구 생쥐도 같이 뒤집어 누워 췌어요.

1. 그림책 읽기

■ 내용 파악 및 예상하며 읽기

-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 코끼리와 생쥐는 무슨 놀이를 하나요?
예: 술래잡기를 해요. 숨바꼭질을 해요.
- 코끼리가 쉽게 생쥐를 찾지 못하는군요. 생쥐는 어디에 숨었을까요?
예: 생쥐는 작으니까 좁은 곳에 숨을 것 같아요. 바위 틈새 같은 곳이에요.
생쥐가 코끼리 몰래 코끼리의 등이나 다리 뒤에 붙어있을 것 같아요.
- 코끼리는 생쥐를 찾기 위해 어디로 가나요?
예: 굴속으로 들어가요.
- 코끼리는 왜 생쥐가 굴속에 숨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예: 생쥐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 코끼리가 굴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니 굴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 굴이 점점 좁아져요. 천장이 바닥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굴의 높이가 줄어들어요.
- 굴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생쥐는 보이지 않을 때 코끼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불안해요. 무서워요.
- 생쥐의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코끼리는 어떻게 했나요?
예: 생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더 깊은 굴속으로 들어가요.
- 굴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코끼리의 모양은 어떻게 변해가나요?
예: 파배기 도너츠처럼 길쭉해졌어요.
뱀모양처럼 길어졌어요.
- 코끼리는 위험에 빠진 생쥐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었나요?
예: 방귀를 꺼서 굴 밖으로 함께 탈출할 수 있었어요.
- 코끼리는 방귀를 뀌자 족제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방귀 냄새가 지독해서 기절했을 것 같아요.
방귀와 함께 반대편 동굴 입구로 날아갔을 것 같아요.
- 생쥐는 굴 속을 빠져나온 코끼리를 보고 왜 놀랐나요?
예: 코끼리가 납작하고 길쭉한 뱀 모양으로 변해 있어서 뱀인줄 알았어요.
- 생쥐는 코끼리가 제 모습을 찾도록 어떻게 도와주었나요?
예: 공기주입기로 코에 바람을 넣어주었어요.
- 생쥐와 코끼리는 어떤 말을 하며 헤어졌나요?
예: 내일 또 놀자

■ 인상적인 장면 나누기

- 인상적인 장면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코끼리가 좁아지는 굴을 통과하며 뺨이 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생쥐가 족제비에게 잡혀먹히기 직전에 코끼리가 참고 있던 방귀를 꺼어 족제비를 쫓아내고 둘은 무사히 굴을 탈출하는 장면이 재미있었어요.

- 인상적인 장면을 몸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떤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할까요?

■ 내가 만약

- 내가 만약 코끼리라면 생쥐를 찾기 위해 좁은 굴속으로 계속 들어갔을까요?

예: 저라면 굴 안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좁고 어두워서 무서울 것 같아요.

굴이 좁아지기 전에 '못 찾겠다 피꼬리!'라고 소리칠 것 같아요.

■ 글자의 색깔과 모양에 관심 갖기

- 코끼리가 굴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모양이 변하는 것과 함께 글자의 달라진 점을 찾아봅시다.

예: 글자 색깔이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변했어요.

코끼리가 길고 얇게 모양이 변하니까 글자도 납작하고 길어져요.

- 그 밖에 글자 색깔과 모양의 변화를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코끼리를 나타내는 글자 색은 주황색이고 생쥐는 녹색이에요.

코끼리 방귀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에 물결을 넣어 표현한 게 재미있어요.



Tip. 학생들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춰 타이포그래피에 관해 질문하며 그림과 글자의 조화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읽은 후 활동으로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미술활동을 이어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이름을 타이포그래피(그림글자)로 나타내거나 계절이나 과일을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해도 좋다.

2. 질문 만들기

■ 코끼리는 왜?

- 코끼리는 왜 굳이 힘겹게 굴 깊은 곳으로 걸어갔을까요?

예: 슬레니까 생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생쥐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걱정하며 도와주고 싶어서 열심히 기어간 것 같아요.

■ 질문 만들기

-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예: 코끼리와 생쥐는 내일도 슬래잡기를 하며 놀까?

생쥐는 어쩌다가 족제비에게 잡아먹힐 뻔 했을까?

코끼리가 생쥐를 찾는 동안 생쥐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코끼리는 굴속에 들어간 걸 후회하지는 않았을까?

코끼리와 생쥐는 다른 친구는 없을까? 왜 둘만 놀까?

Tip.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소감 나누기

■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 그림책을 읽은 뒤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코끼리와 생쥐가 단짝 같아요.

코끼리가 생쥐를 구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는 모습이 대단해요.

■ 나 돌아보기

- 여러분들도 코끼리처럼 누군가를 위해 또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경험이 있나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예: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달렸어요.

피아노 연주 대회에 나가기 위해 하루에 두 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하기 싫고 힘들었지만 연주회 때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서 기뻐요.

읽은 후

1. 인물이 빛낸 미덕 찾기

■ 인물에게 전하고 싶은 말

- 코끼리와 생쥐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

예: 코끼리에게 최선을 다한 모습이 멋있었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생쥐에게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냐고 위로해 주고 싶어요.

저는 코끼리와 생쥐에게 앞으로도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말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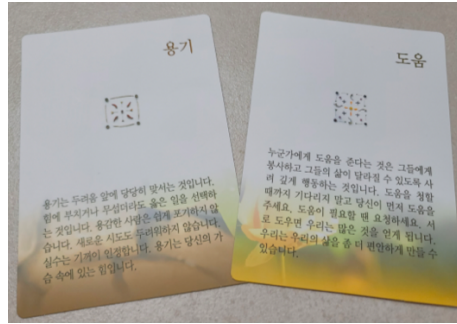
Tip. 코끼리와 생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써서 말풍선 형태로 모아 붙여 공유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것을 모아 핫시팅(인물 초대하여 인터뷰하기)을 하고 인물에게 편지 쓰기로 이어갈 수도 있다.

■ 그림책에서 빛나는 미덕 찾기

- 코끼리와 생쥐가 빛낸 미덕을 찾아봅시다.

- 미덕의 보석들과 미덕 카드를 활용해 봅시다.

예: 코끼리가 생쥐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끈기를 빛냈어요.



미덕의 보석들 배너

미덕 카드

미덕의 보석들 스티커를 만들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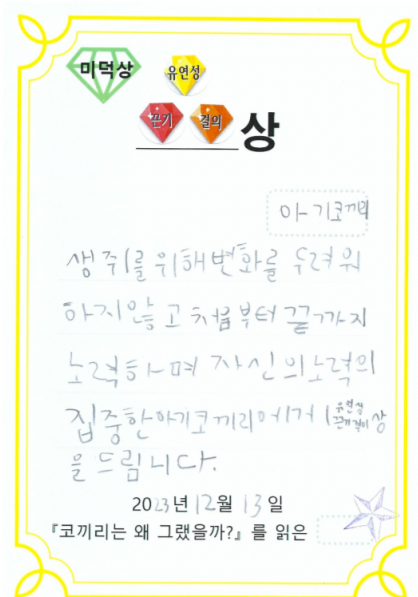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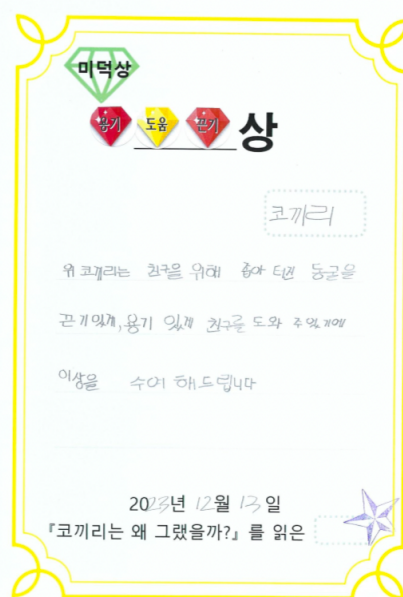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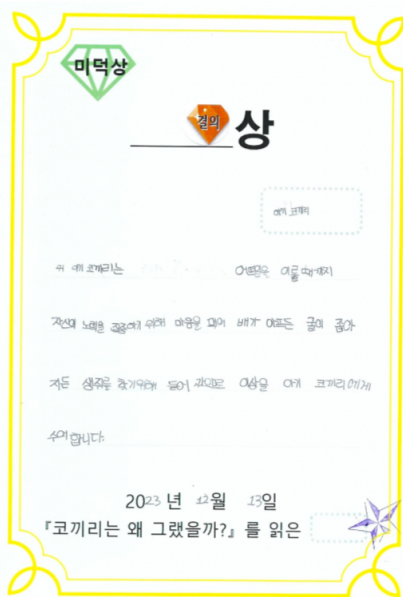
코끼리가 생쥐를 찾기 위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참고 굴 안에 들어가는 모습에서 용기의 미덕을 발견했어요.

Tip. 한국버추프로젝트 <http://www.virtues.or.kr/> <미덕의 보석들>을 활용하여 미덕을 찾고 그 뜻을 알아본다. 학생들이 선택한 미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왜 그 미덕을 골랐는지 이유를 들어본다.

■ 빛나는 미덕상 만들기

- 코끼리와 생쥐의 모습에서 발견한 빛나는 미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미덕상을 만들어 봅시다.

예:



Tip. 미덕상 활동지는 상장형식으로 만들어 나누어준다. 제시된 미덕 뿐 아니라 다른 미덕이나 가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예: 최선상, 우정상.

2. 일기 대신 쓰기

■ 등장인물의 일기 대신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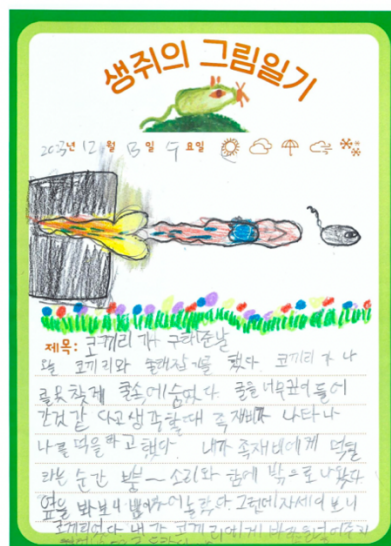
- 내가 만약 코끼리나 생쥐라면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일기로 표현했을까요? 코끼리 또는 생쥐의 입장이 되어 있었던 일과 생각이나 느낌을 넣어 그림일기로 표현해 봅시다.



제목: 생쥐의 숨바꼭질 놀이
 생쥐와 숨바꼭질은 했다. 내가 먼저 숨바꼭질 하였다. 나는 숨바꼭질
 아리워하기도 없어서, 생쥐는 어떤 곳을 좋아하니까 동굴에
 숨은 거고 생쥐도 동굴에 들어갔다 근데 점점 동굴에
 들어갈수록 길어졌다.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들어갔다. 생쥐의 소마 들렸다. 족제비에게
 잡아 먹힐까 했던 것이다. 나는 생쥐가 나를 잡았다.
 친구 친구 생쥐가 나랑. 2학년 생쥐가 내가 숨은 곳을
 내친다. 생쥐가 숨바꼭질 나랑 숨바꼭질도 바쁘게 놀고 있었
 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제목: 짹짹이를 구하러
 나는 짹짹이보다 숨바꼭질을 했다. 내가
 숨바꼭질 했다. 내가 짹짹이를 찾아야 했다.
 짹짹이가 굴에 숨어있을 것 같아 나는
 드러 갔다. 그런데 짹짹이의 소리는
 들리는데 굴이 점점 들어갈수록 작아졌다.
 (이와 동의하다) 그러니까 너무 작아지고 작아지고
 너무 작아졌다.



제목: 코끼리가 구해준 날
 왜 코끼리와 숨바꼭질 했다. 코끼리가 나
 잘못하게 숨바꼭질 했다. 큰 바위 밑에 들어
 간 것 같다고 생쥐한테 족제비 나타나
 나를 먹을라고 했다. 내가 족제비에게 먹일
 라는 순간 밤- 소리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눈을 밝보니까 생쥐가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생쥐였다. 내가 코끼리에게 배운 것들이
 내일도 코끼리랑 놀 것이다.

Tip. 코끼리와 생쥐 중 더 공감되는 인물을 골라 그림일기를 쓴다. 그림책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상상해서 써도 된다고 알려 준다. 코끼리와 생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울리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생쥐가 족제비에게 위협을 느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상상해서 써도 좋다고 알려준다. 그림일기쓰기 활동지를 활용해 보자.

3. 함께 놀자!

■ 친구들과 함께 놀기

-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해 봅시다.
-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하고 싶나요?
 예: 숨바꼭질, 일음땡,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 그 놀이는 어떤 순서나 방법으로 하는 놀이인가요?
-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놀기 위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 즐거운 놀이를 위한 약속과 규칙을 함께 정해 봅시다.

Tip. 학급 상황에 따라 바깥놀이 혹은 교실놀이를 한다. 놀이는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고 전체 학생이 두루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고른다. 놀이를 하기 전에 놀이 순서뿐 아니라 약속과 규칙을 인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진다.

■ 소감 나누기

- 놀이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키며 놀았나요?
-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궁금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 친구들과 함께 놀이한 기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_____ 상



20 년 월 일

『코끼리는 왜 그랬을까?』 를 읽은



코끼리의 그림일기



년

월

일

요일



제목:

.....

.....

.....

.....

.....

.....

생쥐의 그림일기



년

월

일

요일



제목:

.....

.....

.....

.....

.....

.....